

동구 월남동 공영차고지 이전 '8년째 제자리'...주민들 '답답'

2018년 초 주민과의 대화서 이설 건의 2년 후께 대체 부지로 '선교계' 도출 '그린벨트' 탓 광주시 관리계획 변경 용역 4년가량미완...국토부 허가·매입비 관건

광주 동구 월남동 공영차고지 이전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어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5일 동구에 따르면 1998년 8월 월남동 177번지에 1만2천23㎡ 규모의 공영차고지가 들어섰다. 25억7000만원을 들여 설립된 해당 시설은 현재 시

내버스 160여대의 종착지이자 기점이다.

문제는 지난 2016년 공영차고지 부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부터 불거졌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1차와 2차로 나뉘는데, 그 사이에 공영차고지가 있어 시설의 소음과 매연이 거주 공간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2018년 2월 열린 동구 주민과의 대화에서 아파트 입주자들은 월남동 공영차고지 이전을 제안했다.

이후 동구는 이듬해 1월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이 자치구를 순방했을 때 월남동 공영차고지 이전 사업 용역을 건의했다.

이전 시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추경을 통해 이전 타당성 용역비가 확보됐고 동구는 관련 예산

을 받아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위탁 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전 후보지로 현재 차고지에서 약 2km 떨어진 선교계 남측 부지가 도출돼 동구는 2021년 2월 이전을 건의했고 같은 해 10월 광주시는 '관리계획 변경 용역' 추진을 시작했다.

이는 대체 부지로 꼽힌 선교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기 때문이다.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된 그린벨트를 개발하려면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요건은 사안마다 다른데, 관건은 해체 사유가 녹지 보존의 목표보다 더 중요한 지다. 4년 가까이 진행 중인 관리계획 변경 용역도 마땅한 해체 사유를 도출하기 위함이다.

그 사이 광주시는 2023년 8월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을 우선 신청했고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국토부를 상대로 사전협의 차원의 브리핑을 진행했다.

그러나 브리핑마다 국토부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대체 부지라는 이유만으로 해제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의 허가를 받더라도 이전 사업이 언제쯤 본격도에 오를 지는 미지수다.

선교계가 현재 민간 소유여서 시설 이전비를 제외하고 부지 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별도로 마련해야 해서다.

또 현재의 공영차고지 부지 활용 방안 등도 수립해야 해 이전 문제 해결은 앞으로 수년이 걸

릴 것으로 전망된다.

월남동 주민 김모(50대)씨는 "주민과의 대화에서 얘기했을 땐 문제가 금방 풀릴 줄 알았는데 갖난아이가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진전이 없다는 게 어이가 없다"며 "민원을 제기했던 이웃들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에 이사를 고민할 정도"라고 답답함을 털어냈다.

입택 동구청장이 월남동 공영차고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동구청 내부에서도 이 문제가 답보 상태인 점을 달가워하지 않는 기색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 용역사와 타당성 확보에 힘쓰고 있다"며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재영 기자



폭우 대비 모래주머니 제작 5일 오전 광주 북구 동림동 산동고전수공원 주차장에서 작업자들이 침수 예방에 사용할 모래주머니를 만들고 있다. <광주북구 제공>

'2명 사상' 강풍주의보 속 작업 지시 책임자들 금고형

광주교법, 1년6개월·8개월 유지 판결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음에도 작업을 지시해 2명의 사상자를 유발한 현장 소장 등 안전 관리 책임자들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년6개월과 금고 8개월을 선고받은 현장소장 A(40대)씨와 안전관리책임자 B(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2월 1일 영암군 대불국가산단 내 부두에서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했다가

작업자 2명이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부두에는 초속 12m의 강한 바람이 불어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작업 강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작업자 1명이 "바람이 불어 작업을 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작업자들이 작업 중이던 크레인이 넘어져 지상으로 추락해 피해자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

볍지 않다"며 금고 1년6개월과 금고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쌍방의 불복으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선박 제조업의 재하도급 관행으로 인해 적절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가 상주하지 않는 작업 환경에서 현장 인력의 개별적인 판단에 의존해 의사 결정이 이뤄진 구조적 문제가 위험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결과가 무겁다"며 "원심이 정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인재영 기자

'끼임 사고' 중상 50대女, 헬기로 천안 이송

광주 광산구 평동 한 공장서 발생

호남지역 6개 병원 모두 "수술 불가"

광주 한 공장에서 작업 도중 기계 설비에 양손이 압착돼 중상을 입은 50대 여성이 지역 내 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충청권으로 긴급 이송됐다.

5일 광주 광산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2분께 광산구 평동 한 공장서 A(50·여)씨가 기계 설비에 양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손목 절단 등 중상을 입었으며, 출동한 구급대로부터 응급조치를 받았다.

구급대는 A씨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판단해

호남권 주요 병원 6곳에 수용 및 수술 가능 여부 문의했으나, 수술실 부재 등을 이유로 모두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구급대는 수접할 수술이 가능한 충남 천안의 한 전문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기로 하고,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조선대학교 운동장으로 A씨를 이동시켰다.

A씨는 사고 발생 1시간50여분 만인 오후 4시 30분께 조선대 운동장에서 출발한 소방헬기를 통해 천안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관계자는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호남권에서는 모두 수용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신속히 헬기 이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윤근 기자

사라진 일본군 추모 '충혼비'...시민단체, 행방 수소문

일제, 무안 옛 일본인 소학교 정문 설치

일제강점기 당시 전사한 일본군 추모를 위해 무안에 세워졌던 '충혼비'가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관련 단체가 행방 찾기에 나섰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5일 "러일전쟁 이후 일제가 무안군 망운면 일본인 소학교 정문 앞에 설치한 충혼비가 수년째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라며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충혼비는 1912년 다이쇼(大正) 천황 즉위를 기념해 지역 재향군인회가 모금해 세운 비석으로, 당시 일본인 초등학교였던 남소학교(현 망

운초등학교) 정문 앞에 자리 잡고 있었다.

무안군 망운면 일대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거주 비율이 높았던 지역으로, 말기에는 망운비행장이 건설되고 일본인 전용 학교가 들어설 정도로 군사적 요충지로 활용됐다.

광복 이후 충혼비는 마을 일대에서 닳듯들러 전용돼 방치돼 있다가 한 주민이 이를 수거해 한 동안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가 사망하면서 현재는 비석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충혼비는 일본 군국주의의 전쟁 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유물"이라며 "침략의 역사를 바로잡고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흔적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